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복지부·사회부·국회 출입
발신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 (담당 : 이서영 사무국장 010 6354 1683 /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인권팀장 010 5019 2643 /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 7726 2792)
제목 [보도자료] 전국 51개 노동, 시민사회단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출범 선언
날짜 2024. 05. 24 (총 5 쪽)

보도자료

전국 51개 노동_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공식 출범해

의료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 충분한 공공병원으로
지역 의료공백 및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밝히고,
모든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은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행사 열려
노동 시민사회 및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축하 연대 인삿말
이어져

일시및 장소 : 2024. 5. 25(토) 16:00 / 영등포 하자센터 (본관 2층)

- 지난 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결성된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 준비모임은
최근 의료대란과 시장화된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으로 포장,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공백 및 의료접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를 본격 출범합니다.

2. 이날 행사에는 전국 51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현 의료대란에서 시민의 권리와 필요가 배제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의료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반복되고 있는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감염병, 기후재난, 건강불평등, 의료이용권의 차별 등에 대안으로 시장 중심의료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의료를 통한 변화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3. 행사에는 노동 시민사회 축사와 결의 마당을 비롯, 공공의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짐하는 22대 국회 당선인들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운동본부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공공의료 법 개정 투쟁을 비롯, 의료를 영리화하고 민영화하려는 정책들에 맞서는 운동에도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4. 차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는 공공의료를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출범 행사에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 출범의 뜻을 담은 출범 선언문과 행사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를 아래 첨부합니다.

▣ 붙임1 :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한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 중심 의료 체계는 의료비 상승, 의료인력 부족, 통합적 서비스의 분절, 소외, 의사-환자 간 불신을 낳고 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의료접근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건강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생태 위기는 극심한 기후재난, 인수공통감염병 증가로 인한 팬데믹 등의 위협으로 인류 존속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는 시장 중심 의료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누구도 타인의 목숨을 선별하거나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진실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의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소외, 차별,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임을 선언한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 의료 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농락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의료 공급체계는 시민의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는 필수적 조건이다. 공공의료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지역이나 계층에 의한 의료격차를 해소하며 개인과 집단의 존엄을 보장하는 필수 생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공공의료가 서로 교차하는 여러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임을 선언한다. 공공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던 시장 중심 의료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최소의 조건이다. 소득, 질병, 장애, 인종, 젠더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공병원의 이용의 모자람이 없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고유한 잠재력을 펼치도록 만드는 최소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공의료가 현재 진행 중인 기후·생태 위기를 완화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이윤보다 사람들의 삶과 생태 조건을 우선 고려하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서비스는 이윤 중심 의료 체계보다 생태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필요에 부응하는 좋은 공공병원은 생태 위기로 인한 사회적 물리적 변화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 간 평화와 정의를 달성하는데 앞장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료주권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한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보편적 접근성 : 경제적 접근성과 지역적 접근성을 포함해 누구나 존엄하게 생활하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와 투명성 :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설계, 조직, 재정, 거버넌스,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에 있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공공성 : 보건의료인력 양성, 공급, 면허, 교육 등에 대한 제도는 공공복리에 맞게 규제되어야 하며,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는 국공립 의과대학 제도를 신설하고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1. 건강불평등 개선 : 공공병원은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 소득에 따른 불평등, 질병에 따른 불평등,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른 불평등, 장애 유무에 따른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해 애써야 한다.

1. 생태 환경의 보호: 공공병원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생태를 보호하고 고려하며, 이윤을 위한 낭비 의료를 멈추고 환경친화적 병원이 되도록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1.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 환경 : 공공병원은 공공의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과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 상업적 의료로부터의 보호 : 공공병원은 이윤과 자본 축적을 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병원은 보편적 공공의료 서비스의 원칙에 입각해 상업적 의료와 영리적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은 국가가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다.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과 지속가능한 운영의 책임은 국가와 시민들의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약속이다. 우리는 시장 중심 의료 체계 속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효율, 낮은 품질, 경제 성장에 해가 되고, 공공의료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한다는 등의 많은 편견과 신화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들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된 전략들일 뿐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것이 거짓말임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우리는 잘못된 편견들에 맞서 시장 중심 의료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공공병원,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되는 공공병원, 누군가의 목숨을 흥정하거나 선별하지 않는 공공의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공공의료가 우리의 미래다. (끝)

■ 붙임2 :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 순서

1부 : 축사 및 지역운동 소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축사 및 인사말

22대 국회의원 축사 및 인사말
전국 지역조직 결성부터 운동본부 출범까지 (영상 시청 및 결의 발언)

2부 : 축하공연 및 참가단체 결의 마당
축하공연
참가단체 소개 및 결의 발언
우리가 만드는 공공의료의 나라 (퍼포먼스)
출범선언문 공동 낭독 후 출범선포

■ 붙임3 : 참여 단체 (24일 기준 51개 단체)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업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이상 51개단체)